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환경과 정책과제



Family Suppor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가족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족 내 부양이 필요한 수요자는 급증하는 데 비해 부양관 약화와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및 가족 해체 등으로 가족 내 부양을 담당할 주체가 감소하는 단적인 현상이 야기되었다. 가족 부양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부양 공백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균형 있는 가족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가족 부양의 위기 요인인 양성불평등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실천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부양 위기의 예방부터 사후적인 치료·회복 등의 단계별 접근에서는 가족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지체로 인해 부모 세대가 노인과 성인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욕구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부터 소득 및 주거, 결혼·출산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개인주의화, 만혼 현상, 이혼율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 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개인주의화

에 따른 독신 가구의 증가, 이혼·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 증가, 가족 분거로 인한 고령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가족 규모 축소와 세대의 단순화로 소가족화,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4년 12.7%에서 2015년 13.2%로 높아져 13%대에

진입하였으며,¹⁾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초저출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²⁾ 초혼 연령은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각각 32.6세, 30.0세이며 이혼율은 2000년 인구 천 명당 2.5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³⁾ 특히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5년 27.2%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⁴⁾ 조이혼율은 2000년 천 명당 2.5건에서 2010년 2.3건, 2015년 2.1건으로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⁵⁾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가구는 2014년 71.6%로 3분의 2를 상회하였고, 그중 노인 부부 가구와 노인 독신 가구 비율은 2004년 각각 26.6%, 24.6%에서 2014년 44.5%, 23.0%로 노인 부부 가구는 거의 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⁶⁾ 이와 함께 가구주의 고령화 및 여성화,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신사회 위험에 노출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2000년 44.5세에서 2010년 49.0세, 2015년 50.8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성별 분포는 2000년 남성 81.5%, 여성 18.5%에서 2015

년 각각 70.4%, 29.6%로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 가족은 2000년 35.4%에서 2011년 43.6%, 2014년 43.9%로 증가하였고,⁷⁾ 한부모 가족도 2000년 7.9%에서 2010년 9.2%, 2015년 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족사회 환경의 변화는 단적으로 가족 내 돌봄·부양이 필요한 수요자는 급증하는 데 비해 부양관 약화와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및 가족 해체 등으로 가족 내 돌봄·부양을 담당할 주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야기됨에 따라 가족 부양 환경이 악화되어 부양 기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관념상 가족주의 속에서 가족 부양을 해결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⁸⁾ 현대사회로 오면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가족에 대한 돌봄·부양의식이 변하고 가족이나 사회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족 부양 부담에 대한 사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장

1)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5). 고령자 통계.

2) 통계청. (201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15). 인구동향조사.

3) 통계청. (200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15). 인구동향조사.

4) 통계청. (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5) 통계청. (200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1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14). 인구동향조사.

6)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

7) 관계 부처 합동. (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p. 27; 통계청. (2011).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2014). 지역별 고용조사.

8) 김송애, 조병은. (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가족 부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본고는 기존 조사 자료를⁹⁾ 활용하여 가족 부양에 영향을 주는 가족사회 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살펴보는 한편, 가족 부양 환경 및 정책 욕구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족 부양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부양은 봉양, 수발, 돌봄 등의 다양한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¹⁰⁾ 부양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창수¹¹⁾는 부양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정서적 지원, 필요한 자원 제공, 인간관계 형성, 일상생활 또는 이동 시 도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의 제공 등을 포함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부양은 피부양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의 모든 측면에서 개인의 사적인 자원과 부양 체계뿐 아니라 사회적 대처를 통해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한편, 부양은 상호작

용의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한다. Caplan(1976)은 부양은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¹²⁾ 그리고 Horowitz와 Shindelman(1982)도 부양을 부양 제공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Warren은 물리적 원조, 정서적 지지, 신체적 고통을 보살피는 일, 외로울 때 위로와 시중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부양으로 정의하였다.¹³⁾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 개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가족 부양을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부양은 돌봄이나 지원 등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된다. 부양 유형 가운데 경제적 지원은 금전과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지원은 피부양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도구적 지원은 신체적 독립과 가사 운영 및 생활에 필요한 청소·심부름·질병 시 부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9)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족위기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함.
10) 일반적으로 부양은 경제적인 원조를, 봉양이나 수발, 돌봄은 신체적 및 정서적인 원조에 주목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양영자 (2009),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2에서 재인용].
11) 정창수. (2009).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6.
12) 서소용, 김명자. (1998).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81-107.
13) 이남순. (2006). 현대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2(3), 172-193.

3. 가족사회 변화 원인과 현상

가. 가족 구조 및 가족 해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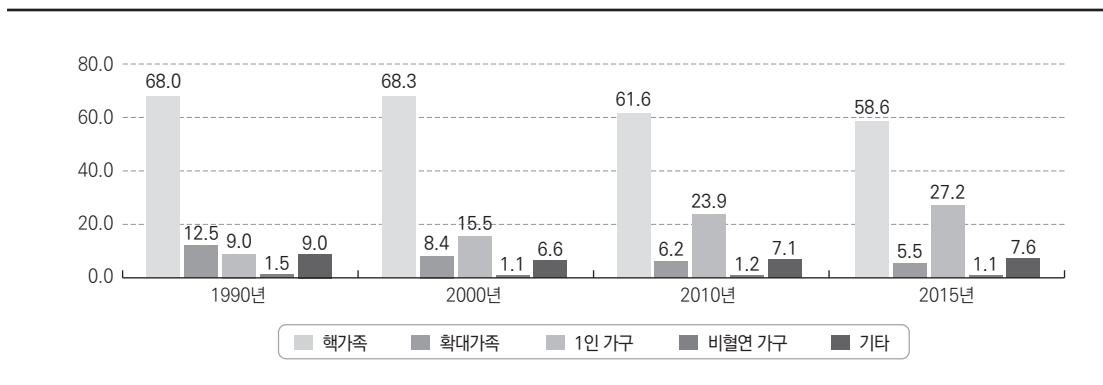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 가족 구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소가족화와 핵가족화이다. 1990년에는 핵가족 형태가 68.0%로 과반수를 상회한 데 비해 확대가족 형태는 12.5%로 핵가족의 5분의 1 미만이었고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는 각각 9.0%, 1.5%에 불과하였다. 20년간의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가구 유형이 변화하여 2015년에는 핵가족 형태가 58.6%로 1990년에 비해 9.4%포인트 감소하였고, 확대가족 형태는 5.5%로 같은 기간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는 27.2%로 3배 증가하였으며 비혈연 가구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가족화는 개인주의화에 따

른 가족원 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만혼화 현상, 그리고 이혼율 증대 및 저출산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가족 가치관과 가족 결속력 약화로 인한 가족 해체의 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가구주의 성별과 혼인 상태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남성 가구주가 84.3%, 여성 가구주는 15.7%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많았으나 2000년에는 각각 81.5%와 18.5%, 2010년에는 74.1%와 25.9%, 2015년에는 70.4%와 29.6%로 최근 25년간 남성 가구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여성 가구주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남녀 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이혼·별거 및 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로 여성 가구주가 증가한 데서 오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가구주

그림 1. 가구 유형 추이(1990~2015년)

(단위: %)



자료: 1) 통계청. (199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통계청.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3)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4)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의 혼인 상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1990년 유배우 가구주는 79.6%로 5분의 4 분포를 보였고, 사별과 이혼은 12.0%, 미혼은 8.3%로 나타났다.¹⁴⁾ 2000년에는 각각 75.0%, 14.8%와 10.2%, 2010년에는 66.6%와 19.0%, 10.2%, 그리고 2015년에는 63.4%와 21.4%, 15.2%로¹⁵⁾ 25년간 유배우 가구주는 점차 감소하고 이혼·사별 및 미혼 가구주의 분포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소가족화, 핵가족화로 인한 1~2인 가구와 이혼·사별 등에 따른 해체 가구의 증가는 가구의 돌봄 기능 공백과 부양 부담 등에 노출된 가족 부양 환경을 여실히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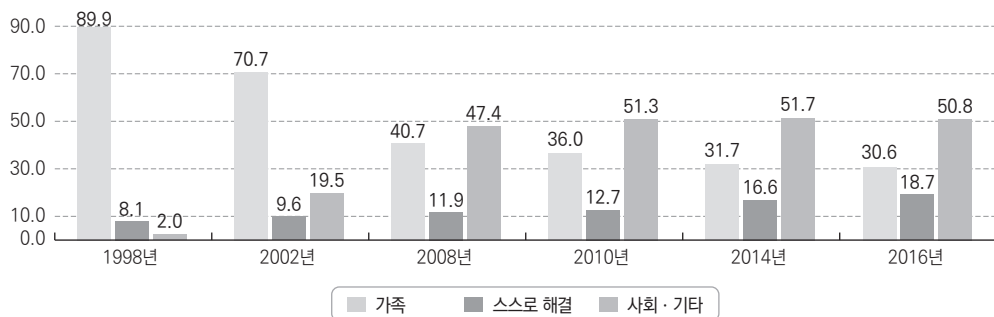
나. 부양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양관은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부양에 집중되었으나 가족주의 약화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법 및 제도적인 변화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족 부양은 감소하고 국가와 사회에 의한 공적 부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 부양관에 잘 반영되어 있다.

부모 부양관의 변화를 보면,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 1998년에는 ‘가족’이라는 응답이 89.9%로 대다수였고 ‘스스로 해결’, ‘사회·기타’는 각각 8.1%와 2.0%로 미미하였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 모두’가 29.4%로 3분의 1에 못 미쳤고, 딸을 포함한 ‘자녀 모두’는 15.0%에 불과하였으나 ‘능력 있는 자녀’라는 응답은 45.5%로 과반수에 근접하였다. 2010년에

그림 2. 부모 부양 책임자

(단위: %)



주: 1) 분석 대상은 15세 이상 인구임.

2) 부모 부양 가치관에서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1998~2016 사회조사 결과.

14) 통계청. (1990). 인구 및 주택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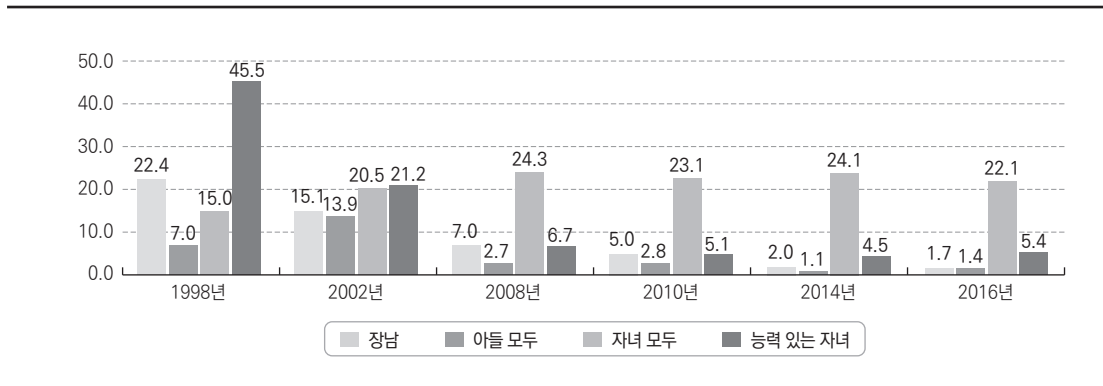
15) 통계청. (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는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이 36.0%로 1998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 사회·기타는 각각 12.7%, 51.3%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부모 부양을 사회화하려는 태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16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중 부양 책임자로 장남과 아들 모두를 꼽은 비율은 7.8%로 감소한 데 비해 아들·딸 모두는 23.1%로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가족이 30.6%로 1998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하였고 스스로 해결, 사회·기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9.5% 분포로 3분의 2를 상회하였다. 가족 중에서는 모든 자녀가 22.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여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노부모의 자기 부양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 등에 의한 공적 부양에 대한 의식이 높아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가족 중 부모 부양 책임자

(단위: %)



주: 1) 분석 대상은 15세 이상 인구임.

2) 부모 부양 가치관에서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1998~2016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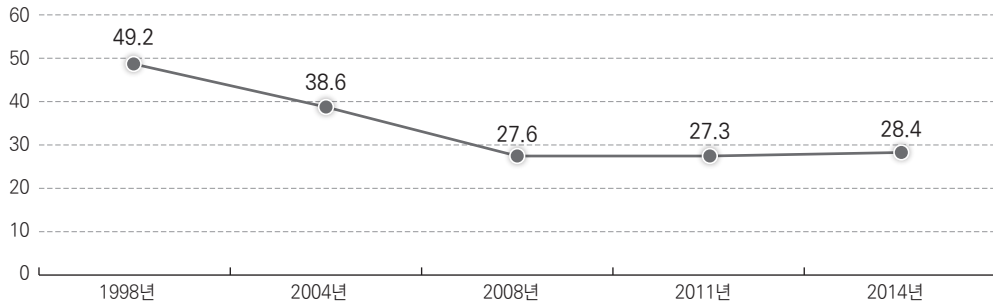
다. 노부모-성인 자녀 간 가족 결속력 약화

노부모-성인 자녀 간 결속력은 부모와 자녀 간 동거 형태와 교류 빈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 여부를 보면 1998년 자녀와의 동거가 49.2%, 비동거는 50.8%로 비슷

한 비율을 보이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부모-자녀의 동거가 점차 감소하고 비동거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자녀와의 동거 28.4%, 비동거 71.5%로 비동거가 동거보다 2.5배 많았는데(표 2), 이는 부모의 보호 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 비율

(단위: %)



자료: 1)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4.
 2) 정경희 등.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2.
 3)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 138.
 4)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9.
 5)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노부모-성인 자녀 간 교류 빈도에서도 드러난다. 부모와의 연락 빈도는 1998년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이 74.5%에서 점차 증가하다 2014년에는 72.9%로 감소하였다. 부모와의 만남도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이 1998년 40.8%에서 2014년 37.7%로 감소하여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표 1).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교류 빈도가 적어져 가족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비해 노부모-성인 자녀 간 비동거 거주 형태와 낮은 결속력은 가족 보호 체계를 약화하고 부양 부담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 또는 형제 자매 간 부양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라. 가족 돌봄 수요 증가 및 부양 주체 감소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0세에서 2010년 80.79세, 2015년 82.0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율도 2000년 7.3%에서 2010년 11.3%, 2015년 13.2%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고령인구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고령인구의 확대는 돌봄이 필요한 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의존적 노인 인구에 대한 수발 및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이 과중해짐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1~2인 가구 중심의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가족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 수도 2000년 3.1명에서 2015년 2.5명으로 줄었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맞벌이 가족과 이혼으로 인한

표 1. 부모와의 교류 변화(1998~2014년)

(단위: %)

구분	1998	2004	2008	2011	2014
부모와의 전화 통화					
거의 매일	22.6	29.7	25.4	23.9	25.9
일주일에 한두 번	51.9	49.8	53.7	59.7	47.0
한 달에 한두 번	20.1	17.1	16.2	14.9	19.3
일 년에 몇 번	3.6	2.3	4.2	0.9	5.7
거의 하지 않음	1.8	1.2	0.6	0.7	2.0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2.3	11.4	10.9	9.4	10.8
일주일에 한두 번	28.5	29.7	34.9	38.9	26.9
한 달에 한두 번	36.5	36.2	30.0	46.5	31.5
일 년에 몇 번	19.2	20.4	7.1	4.2	29.0
거의 하지 않음	3.5	2.3	1.0	1.0	1.8
계(명)	100.0(2,094)	100.0(2,892)	100.0(14,310)	100.0(10,153)	100.0(9,745)

자료: 1)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8.
 2) 정경희 등.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8.
 3)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 196.
 4)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34-137.
 5)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37-138.

가족 해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가족 해체는 가족 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돌봄 수요 증가 대비 부양 주체의 감소 또는 부재는 가족 돌봄·부양이 공백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가족에게 가족 돌봄 기능의 과부하로 작용하여 더 이상 선가정 후보호의 패러다임¹⁶⁾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가족을 대체할 부양 주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가족 부양 환경 및 정책 욕구

가. 자녀 돌봄 양상

자녀 돌봄 양상은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 돌봄 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년 자녀 돌봄 양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바 있는 가족실태조사 결과¹⁷⁾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영유아 돌봄 실태는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실태를 보면 2005년에 돌봄자가 있는 비율은 97.5%, 돌봄자가 없는 비율은 2.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0년에는 각각 80.8%와 19.2%로 조사 대상 중 5분의 1이 돌봄자 없이 방치되었고, 2015년에는 98.2%와 1.8%로 대부분이 돌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5년간의 격차가 컸다. 2005~2015년간의 돌봄자 비율 증감은 분석 대상의 범위에서 오는 차이로 이해된다. 한편,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의 경우를 보면, 2010년에 돌봄자가 있는 비율은 97.2%, 돌봄자가 없는 비율은 2.8%였으나 2015년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돌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은 자녀 돌봄에 공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은 기관 이용 시간 외 자녀 돌봄에 공백이 있어 주목된다.

특히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은 가구 대표의 연령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돌봄 공백에 차이를 보였다. 가구 대표가 저연령층인 경우 돌보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고연령층에서는 대다수가 돌보는 사람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돌보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연령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체로 젊은 연령층의 맞벌이 부부 가구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음을 시사한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실태를 보면, 2005년에 돌봄자가 있는 비율이 85.3%, 돌봄자가 없는 비율은 14.7%로 적지 않은 분포를 보였고 2010년에 각각 91.9%와 8.1%, 2015년에는 97.1%와 2.9%로 돌봄자가 없는 비율은 10년간 약 12%포인트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가구 유형 및 가구 대표 연령별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실태를 보면, 50대와 70대 이상에서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7~11배까지 높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일반 가구와 구조적 결손 가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이 부재한 비율은 한부모 가구가 11.9%, 조손 가구가 41.7%로 다른 가구에 비해 아동방임과 방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연령층 가구와 결손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 방임 비율이 높아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가 성인 자녀를 돌보는 양상을 부양 유형별(경제적 지원, 집안일, 가족원 돌봄, 상담, 말벗 및 이야기 상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에는 말벗 및 이야기 상대로서 도움을 주는 비율이 4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 및 집안 상담 45.8%, 집안일 23.1%, 경제적 지원 21.0%, 가족원 돌봄이 13.7% 순이었다. 따라서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고 신체적 지원이 가

16) 선가정 후보호란, 가족은 가정에서 먼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기조를 말함.

17)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행되는 법정조사로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2005년에는 2925 가구(가구원 5973명), 2010년에는 2500가구(가구원 4754명), 2015년에는 5018가구(가구원 1만 912명)를 선정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함.

그림 5. 연도별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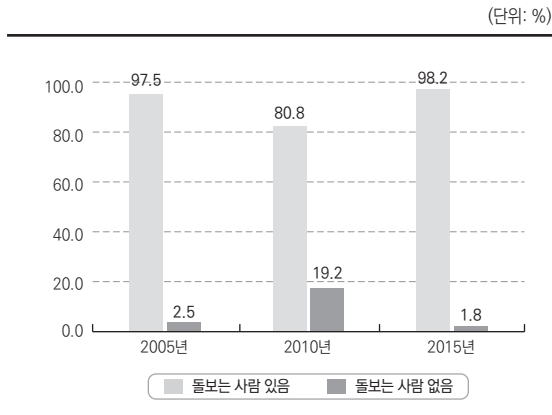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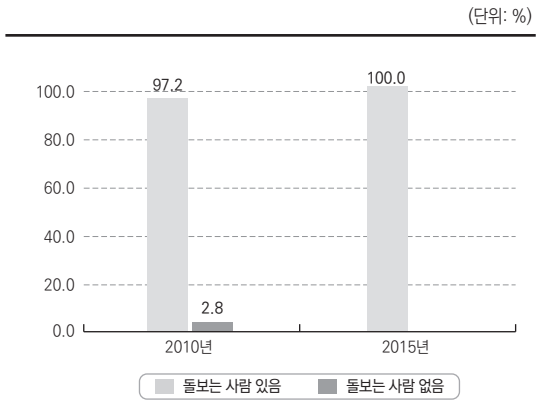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돌봄 실태



주: 1) 2005년 분석 대상은 기관 이용 영유아 529명임.
 2) 2010년 분석 대상은 기관 이용 영유아 287명, 기관 미이용 영유아 198명임.
 3) 2015년 분석 대상은 기관 이용 영유아 1705명, 기관 미이용 영유아 475명임.
 자료: 1)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p. 303.
 2)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pp. 426-428.
 3)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p. 384-385, 388-389.

그림 7. 가구 대표 연령별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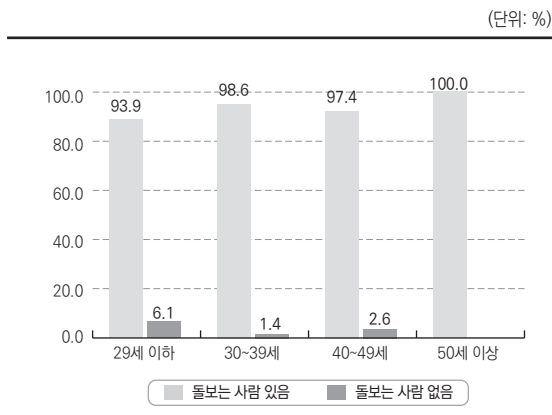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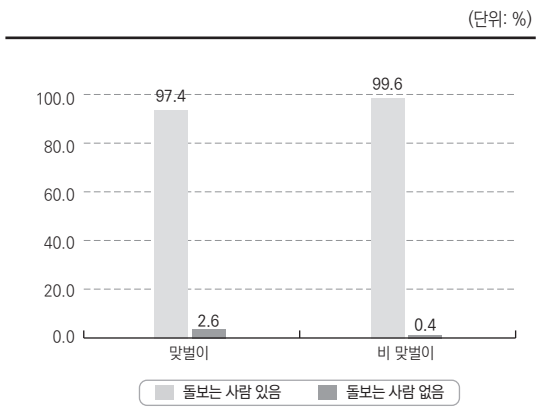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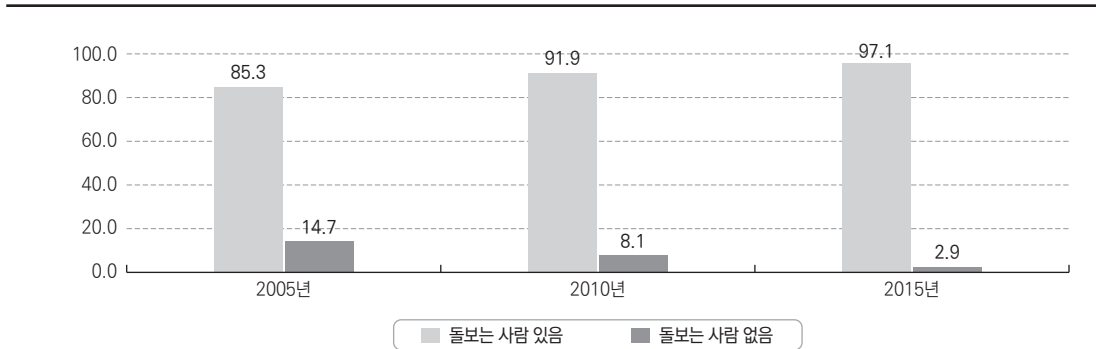
그림 8. 맞벌이 여부별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실태



주: 2015년 분석 대상은 기관 이용 영유아 1705명, 기관 미이용 영유아 475명임.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p. 384-385.

그림 9. 연도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실태

(단위: %)



주: 2005년 분석 대상은 초등학생 669명, 2010년은 516명, 2015년은 2176명임.

자료: 1)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p. 303.

2)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pp. 433-434.

3)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 397.

그림 10. 가구 유형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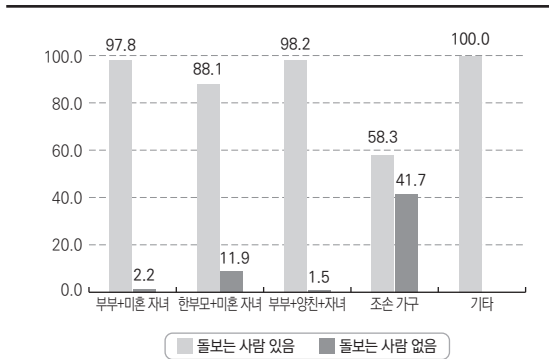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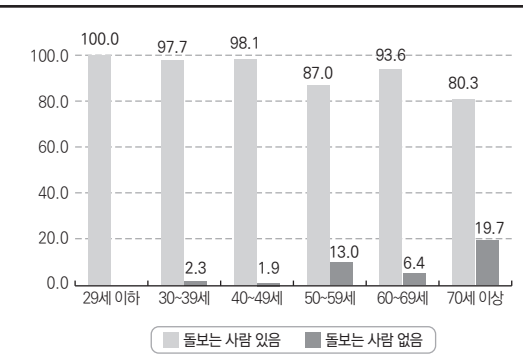


그림 11. 가구 대표 연령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실태

(단위: %)



주: 분석 대상은 초등학생 2176명임.

자료: 여성가족부(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p. 396-397 재구성.

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2015년 아들에게 주는 도움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 도움이 7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인 및 집안 문제

상담이 66.0%, 집안일 도움이 63.2%이었으며, 가족원 돌봄과 말벗 및 이야기 상대는 모두 약 57% 분포를 보였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전반

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가족원 돌봄이 4.1배, 경제적 도움이 3.4배, 집안일 도움이 2.7배 등으로 높아진 것이라 주목된다. 부모가 딸에게 주는 도움은 말벗, 이야기 상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율이 아들보다 낮았으며, 그 차이는 경제적 도움이 26.0%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이어 집안일과 개인 및 집안 문제 상담 순으로 차이가 컸다. 부모

부양 정도에서 아들과 딸의 차이는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도움이 전반적으로 많아진 것은 능력 있는 부모 세대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만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성인기 자녀의 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그림 12.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도움 정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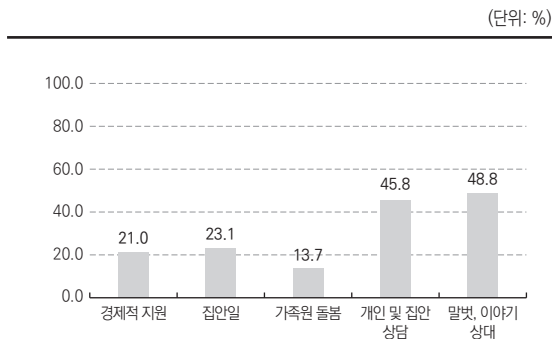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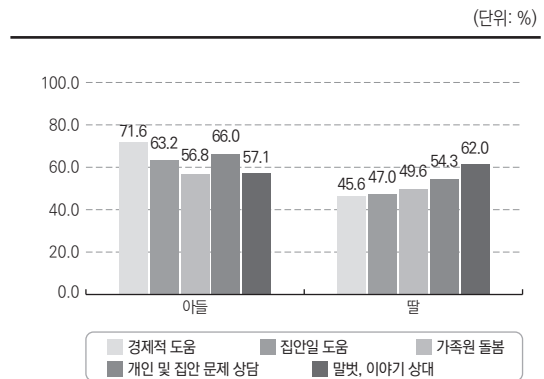


그림 13.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도움 정도 (2015년)



주: 1) 2010년 분석 대상 수는 4754명, 2015년은 1만 4896명임.

자료: 1)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p. 326.

2)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 253.

이와 같은 양상은 부모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10년에는 대체로 경제적 지원, 개인 및 집안 상담, 말벗, 이야기 상대 등의 도움 비율이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 데 비해 집안일과 가족원 돌봄 비율은 장년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2015년은 2010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지원과 집안일 도움은 40

대와 70세 이상이 높아 양극적인 경향을 보였고 가족원 돌봄, 개인 및 집안 상담, 그리고 말벗, 이야기 상대 등은 대체로 고연령층에서 높았다. 이와 같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경제적 지원부터 일상생활, 신체 수발과 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부양 비율이 높은 것은 성인 자녀와 자기 부양, 그리고 노부모 부양까지 이중, 삼중의 부양

표 2. 부모 연령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도움 정도: 2010년과 2015년 비교

(단위: %)

구분	2010년					2015년				
	경제적 지원	집안일	가족원 돌봄	개인 및 집안 상담	말벗, 이야기 상대	경제적 지원	집안일	가족원 돌봄	개인 및 집안 상담	말벗, 이야기 상대
전체	21.0	23.1	13.7	45.8	48.8	71.6	63.2	56.8	66.0	57.1
부모 연령										
40~49세	44.7	24.5	7.6	40.5	41.9	82.7	59.8	38.6	64.3	58.1
50~59세	31.5	30.8	13.0	50.7	56.5	70.3	59.3	46.9	61.4	53.6
60~69세	14.6	20.8	16.9	48.3	50.0	69.3	58.8	52.8	66.0	57.4
70세 이상	10.0	14.5	11.9	36.5	37.0	79.2	80.8	76.1	76.4	64.6

주: 1) 2010년 분석 대상 수는 1354명, 2015년은 1만 4896명임.

자료: 1)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p. 326.

2)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p. 255-263.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만혼화 및 평균수명 지속화에 따른 성인 자녀 부양 부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나. 노부모 돌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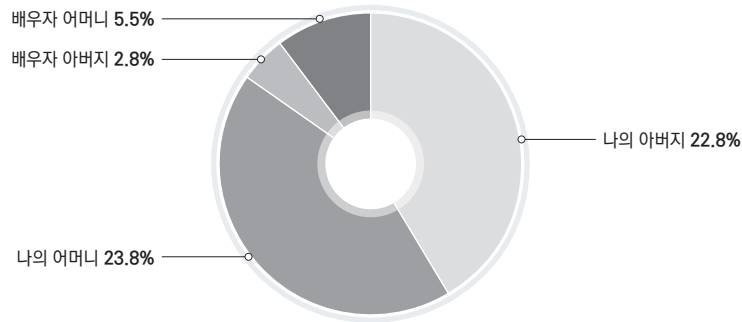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는 환경 및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 자녀의 노부모와의 동거율은 본인 어머니가 23.8%, 본인 아버지는 22.8%로 조사 대상의 5분의 1 정도가 한쪽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율은 3~6%로 미미하였다. 이는 부모 중 5분의 4 정도는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 노부모의 부양 환경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도움 정도를 부

양 유형별로 보면, 2010년에는 말벗, 이야기 상대인 정서적 지원이 5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도움(50.0%)과 개인 및 집안 문제 상담(49.8%) 모두 과반수의 분포를 보이는 데 비해 집안일 도움(20.0%)과 가족원 돌봄(13.4%)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5년에는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양 정도가 높아졌다. 개인 및 집안 문제 상담과 말벗, 이야기 상대인 정서적 지원이 88~89%로 높았고, 이어서 집안일 도움이 약 81%, 경제적 도움과 가족원 돌봄도 75~7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가족원 돌봄 비율이 6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다음으로 집안일 도움 4배, 개인 및 집안 문제 상담도 2배 상승하여 부양 유형 중 신체 수발과 일상생활 및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뚜렷한

그림 14.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율(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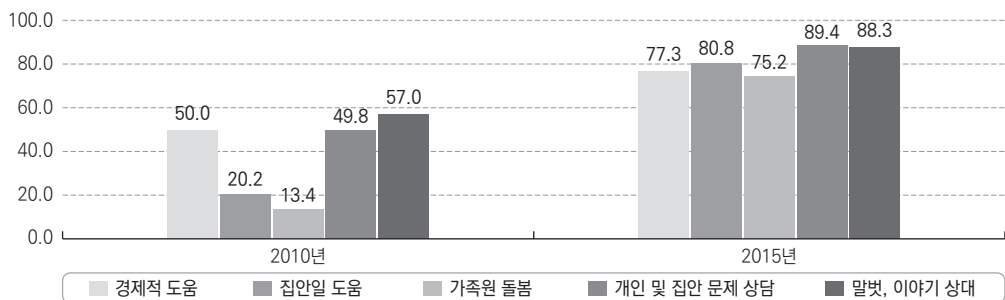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 281.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모든 영역에 걸쳐 부양 정도가 증가한 것은 부모 부양의 필요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노인 증가와 돌봄 주체의 감소는 가족 내에서만 부담하기에는 부양 공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10년에 경제적 지원은 장년·고령층에서 높은 편이었고, 가족원 돌봄도 고연령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집안일은 70세 이상에서 높았으며, 개인 및 집안 상담과 말벗, 이야기 상대 등

그림 15.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도움 정도: 2010년과 2015년 비교

(단위: %)



주: 1) 2010년 분석 대상 수는 1354명, 2015년은 1만 4896명임.

자료: 1)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p. 334.

2)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 283.

정서적 지원도 장년·고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5년은 2010년과는 상이한 추세를 보여 경제적 지원, 집안일, 가족원 돌봄, 개인 및 집안 상담, 그리고 말벗, 이야기 상대 모두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고, 고연령층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젊은 연령층은 자녀 양육과 노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딜레마에 봉착하는 한편, 60세의 경우 노-노케어 양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부양 부담이 배가되어 부양 공백 위험이 예상되므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3. 자녀 연령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도움 정도: 2010년과 2015년 비교

(단위: %)

구분	2010년					2015년				
	경제적 지원	집안일	가족원 돌봄	개인 및 집안 상담	말벗, 이야기 상대	경제적 지원	집안일	가족원 돌봄	개인 및 집안 상담	말벗, 이야기 상대
전체	50.0	20.2	13.4	49.8	57.0	77.3	80.8	75.2	89.4	88.3
자녀 연령										
30세 미만	43.0	23.0	13.1	45.5	55.2	94.3	95.6	94.2	98.0	97.2
30~39세	51.6	20.3	10.7	50.3	58.4	84.3	88.5	83.3	94.1	94.3
40~49세	48.0	17.8	12.5	55.3	61.6	77.1	71.6	70.0	88.3	85.9
50~59세	58.1	18.8	15.8	41.3	45.8	69.1	69.8	69.3	80.0	79.7
60~69세	56.7	27.3	38.4	52.6	59.5	64.9	70.9	67.7	78.2	74.4
70세 이상	74.3	69.6	69.6	66.5	74.3	50.6	41.8	55.7	33.5	32.3

주: 1) 2010년 분석 대상 수는 4754명, 2015년은 1만 4896명임.

자료: 1)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p. 334.

2)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p. 284-293.

다. 가족 부양 공백 위기 양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가족은 현재 부양 환경과 기능의 약화로 공백 발생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위기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태조사’ 자료¹⁸⁾를 활용하여 실제 가족 부양 공백 위기 양상을 발생 수준, 발생 원인과 경험 기간, 어려움 및 위기 전후 변화, 정책 욕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7. 2.~7. 7.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조사 대상은 전 국민 중 만 20세에서 64세 이하의 남녀임.

1) 가족 부양 위기의 발생 수준

가족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 및 노부모 부양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위기를 경험한 응답자 691명 가운데 자녀 및 노부모 부양 위기를 경험한 비율은 30.8%로 3분의 1에 못 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

령이 높을수록 지금까지 자녀 돌봄 및 노부모 부양 위기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맞벌이 부부 여부별로는 맞벌이 부부보다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가족 부양 위기를 경험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가족 돌봄 위기 경험이 응답자의 인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6. 연령별 가족 부양 위기 발생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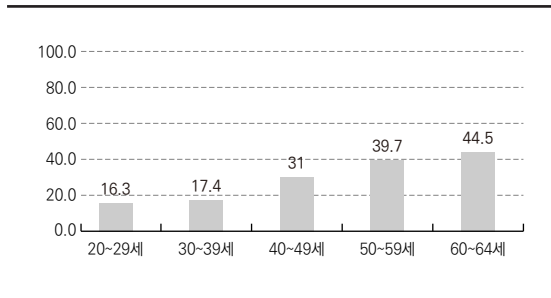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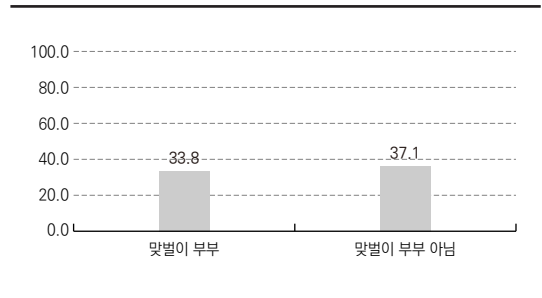


그림 17. 맞벌이 여부별 가족 부양 위기 발생 수준

(단위: %)



주: 분석 대상 수는 위기 경험을 한 응답자 691명임.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0 재구성.

2) 가족 부양 위기의 발생 원인과 경험 기간

가족 부양 위기의 발생 원인은 부양 위기를 경험한 응답자 142명 중에서 63.9%가 자녀 및 부모 부양상의 어려움(가사 및 육아 부담 등 자녀 양육 문제, 비용 부담과 부양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27.2%), 가족원의 갑작스런 질병(26.9%), 가족원의 성격 및 사고방식(13.8%), 중독 및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11.8%), 가족원의 실직, 직장 및 취업 문제(10.7%),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9.6%)

순이었고 나머지는 5%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상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39세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직, 직장 및 취업 문제와 가족원의 갑작스런 질병 비율이 높았고, 40~59세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 성격 및 사고방식,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 정신적 문제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양한 발생 원인의 비율이 높았다. 60~64세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큰 편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가족 주

표 4. 응답자 연령별 가족 부양 위기의 발생 원인(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가계 파산/부도	실직, 직장 및 취업문제	가계 부채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부모 부양의 어려움	성격 및 사고방식	생활방식	부부/부모-자녀관계	중독/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갑작스런 질병	자살/재난	기타	(분석 대상 수)
전체	3.9	10.7	2.6	27.2	63.9	13.8	4.7	9.6	11.8	26.9	2.5	1.2	(142)
응답자의 연령													
20~39세	7.1	17.6	0.0	18.3	64.3	3.1	0.0	4.1	0.0	31.9	0.0	0.0	(28)
40~59세	3.1	7.8	3.1	29.4	63.7	18.2	5.5	13.0	15.1	26.5	3.1	2.0	(88)
60~64세	3.4	13.0	3.4	29.2	64.2	10.4	7.3	3.9	12.9	22.7	3.4	0.0	(26)

주: 1) 분석 대상 수는 위기 경험이 있는 691명 중 가족 돌봄·부양 위기를 경험한 142명임.

2) 자녀 양육, 부모 부양에는 자녀 양육 문제/양육 비용, 가사/육아 부담, 부모 부양 비용 부담, 부모 부양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포함됨.

3) 중복 응답 조사 방식은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 부양 위기 발생 원인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조사한 것임.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2. 재구성.

그림 18. 월평균 가구 소득별 가족 부양 위기 경험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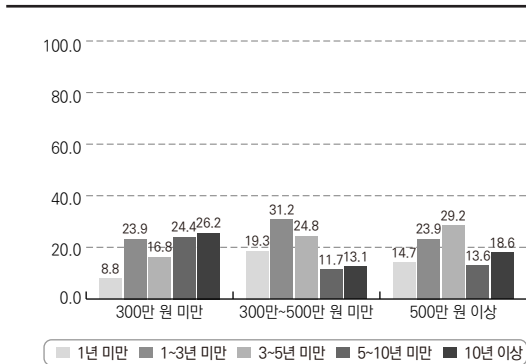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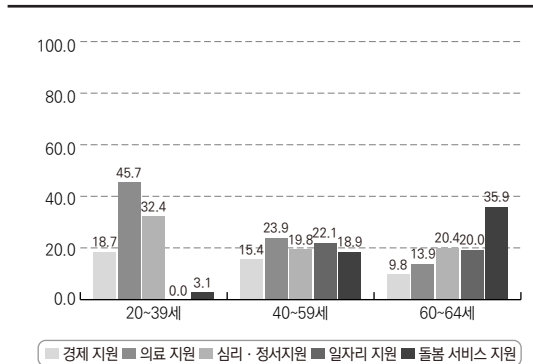


그림 19. 연령별 가족 부양 위기 경험 기간

(단위: %)



주: 분석 대상 수는 가족 부양 위기를 경험한 응답자 140명임.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5 재구성.

기상의 차이에서 오는 가족 기능과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 부양 위기를 경험한 기간은 가족 부양 위기를 경험한 응답자 140명 중에서 5년 미만이 63.8%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5년 이상은 36.2%로 그중 10년 이상도 18.9%에 해당되었다. 가족 부양 위기 평균 경험 기간은 5.4년으로 조사되었다.¹⁹⁾

월평균 가구 소득별로는 대체로 5년 미만은 300만~500만 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 소득층이 300만 원 미만보다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5년 이상은 300만 원 미만 소득층의 비율이 높아 소득이 낮은 집단의 가족 위기 경험 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5년 미

만의 경우 저연령층에서 비율이 높았고, 5년 이상은 고연령층에서 비율이 높아 연령별로 위기 경험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위기가 지속될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위기 경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가족 부양 위기상의 어려움 및 위기 전후 변화

가족 부양 위기를 경험한 응답자 136명을 대상으로 가족 부양 위기 발생 당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는 것이 26.9%로 4분의 1의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음이 23.0%, 복지기관 및 국가의 도움이 없거나 적

표 5. 응답자 연령별 가족 부양 위기 발생 당시 가장 어렵게 느꼈던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음	가족 안에 물적 자원이 부족함	어디에 의존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음	친척·친지/이웃·지인 중에 우리 가족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복지기관/국가의 도움이 없었거나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지 못함	기타	계(수)
전체	26.9	16.9	23.0	5.4	20.1	7.7	100.0(136)
응답자의 연령							
20~39세	30.9	10.6	33.2	8.5	12.4	4.3	100.0(27)
40~59세	29.6	14.6	22.3	6.0	18.4	9.1	100.0(84)
60~64세	13.6	31.5	14.2	0.0	34.0	6.7	100.0(25)

주: 분석 대상 수는 위기 경험이 있는 691명 중 가족 돌봄·부양 위기를 경험한 140명임.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7 재구성.

19)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5. <표 4-27> 인용.

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지 못함이 20.1%로 5분의 1에 해당되었다. 이 외에 가족 안에 물질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16.9%로 적지 않았으며 미미하나 친척, 친지, 이웃, 지인 등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족 자원상의 부족(43.8%)과 사회 지원 기반의 미흡(43.1%)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대체로 20~39세와 40~59세는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어디에 의논·도움을 요청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이 외에 40~59세에서는 복지기관 및 국가의 도움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8.4%의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60~64세는 가족 안에 물질 자원 부족과 복지기관 및 국가의 도움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많아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가족 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녀 부양 위기를 경험한 후의 변화로는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가 33.1%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 관계 소원 31.7%,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25.7%, 위기 경험 후 삶이 더 좋아짐 24.9%, 경제생활이 어려워짐 19.5%,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제약이 27.7%, 미미하나 알코올 등의 중독 현상과 이혼·별거도 나타나고 있다. 위기를 경험한 뒤 가족 관계와 삶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족 관계 소원부터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경제생활, 생활 제약 및 중독, 이혼·별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적 위기 예방도 중요하나 위기 발생 후 사후적인 치료, 회복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볼 때 20~39세는 가족 관계 소원,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사회생활 및 일

표 6. 응답자 연령별 가족 부양 위기 전후의 변화(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경제 생활이 어려워짐	가족관계 소원	이혼·별거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사회생활 제약 (퇴사/휴직)	일상생활 제약 (대인 기피)	나쁜 생활 습관 증가 (알코올/흡연/중독 증상)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	위기 경험 후 삶이 더 좋아짐	기타	분석 대상 수
전체	19.5	31.7	1.2	25.7	13.5	14.2	5.5	33.1	24.9	10.6	(142)
응답자의 연령											
20~39세	12.8	34.6	3.1	21.2	19.8	21.7	9.0	36.2	21.3	0.0	(28)
40~59세	21.3	11.9	32.6	0.9	27.5	13.2	11.7	5.0	31.5	24.3	(88)
60~64세	20.9	25.2	0.0	24.4	7.7	14.7	3.5	35.7	31.5	17.9	(26)

주: 1) 분석 대상 수는 위기 경험이 있는 691명 중 가족 돌봄·부양 위기를 경험한 142명임.

2) 중복 응답 조사 방식은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 부양 위기 전후 변화로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조사한 것임.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9. 재구성.

상생활 제약 등의 부정적 변화와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와 위기 경험 후 삶이 더 좋아진 것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함께 나타났다. 40~59세는 이혼·별거와 사회생활 제약 및 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 변화 비율이 높았으나 일부는 위기 경험 후 삶이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0~64세는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와 위기 경험 후 삶이 더 좋아짐 등의 긍정적 변화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 위기 전후 변화는 가족 주기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4) 가족 부양 위기 해결상의 어려움과 정책 욕구

가족 부양 위기를 경험한 가족 중에서 67.1%, 즉 3분의 2 이상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족의 경우 위기 해결의 어려움으로 가족 간 의견 충돌·

갈등으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2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응답도 27%로 높았다. 또한 외부 지원의 부재, 정보 부족으로 도움 요청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외부 지원 시기의 부적절성과 외부 지원 정도의 미흡 등이 25~26%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외부 지원의 부적절한 내용과 짧은 외부 지원 기간을 이유로 꼽은 비율도 15~1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위기 해결의 장애 요인은 가족 내 외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족 외적 요인의 비중이 높아 지역사회 내 위기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응답자 연령별로 위기가 해결된 비율은 약 67.0%로 3분의 2에 불과하였다. 가족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보면, 20~49대는 가족 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와 정보 부족으로 도움 요청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외부 지원 시기

표 7. 응답자 연령별 가족 부양 위기 해결 여부 및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가족위기 해결 여부		가족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									
	해결된 비율	(분석 대상 수)	가족 내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가족 간에 의견 충돌 및 갈등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보 부족으로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몰라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외부 지원이 없어서	외부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 지원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외부 지원 정도가 너무 적어서	외부 지원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타	(분석 대상 수)
전체	67.1	(139)	27.3	27.9	26.0	26.4	25.0	18.3	24.6	14.5	20.6	(46)
응답자의 연령												
20~49세	67.0	(56)	15.4	29.5	28.7	21.3	38.5	27.1	25.7	10.4	23.1	(18)
50~64세	67.1	(83)	35.3	26.8	24.1	29.9	16.1	12.5	23.9	17.2	18.9	(27)

주: 중복 응답 조사 방식은 가족 부양 위기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조사한 것임.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7. 재구성.

및 내용이 부적절해서, 외부 지원 정도가 적어서 등 외적 요인에 편중되었다. 이에 비해 50~64세는 가족 내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등 가족 내적 요인이 많았다. 이 외에 정보 부족으로 도움 요청 방법을 모른 점, 외부 지원의 부재와 외부 지원 정도, 외부 지원 기간 등이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가족 부양 위기를 경험한 가족 중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의료 지원을 꼽은 비율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이 25.6%, 경제 지원이 20.8%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도 17.7%로 높았으며, 일자리 지원도 약 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위기 당시 필요

한 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응답자 연령별로 20~49세는 경제 지원이 26.3%로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심리·정서 지원, 의료 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50~64세는 의료 지원이 3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 경제 지원, 심리·정서 지원 순으로 높았다. 맞벌이 부부 여부별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경제 지원과 돌봄 서비스 지원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의료 지원과 심리·정서 지원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 비맞벌이 부부는 의료 지원과 돌봄 서비스 지원의 필요도가 높았고, 경제 지원도 5분의 1에 근접하였다.

그림 20. 연령별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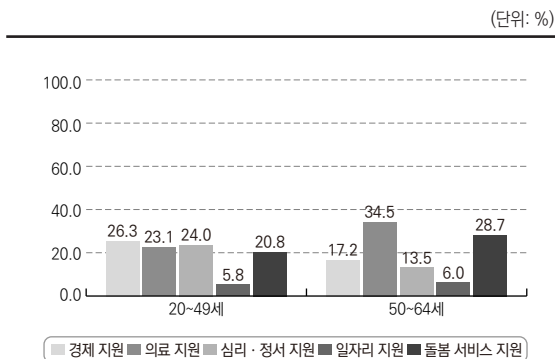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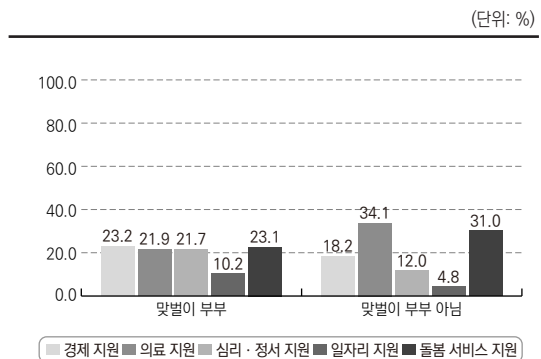


그림 21. 맞벌이 여부별 필요한 지원



주: 분석 대상 수는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응답자 44명임.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0. 재구성.

5. 나가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가족 해체는 가족 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돌봄 수요 증가 대비 부양 주체의 감소 또는 부재는 가족에게 가족 돌봄 기능의 과부하로 작용하여 더 이상 선가정 후보호의 패러다임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가족을 대체할 부양 주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양관은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부양에 집중되었으나 가족주의의 약화와 가족 구조 변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법 및 제도적인 변화 등으로 가족 부양은 공백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가족 부양 위기의 원인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었으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녀 간의 젠더 역할 분담이 매우 강한 사회이고, 현재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젠더 역할에 따른 요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부양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돌봄 참여와 부담 공유가 요구된다.

구조적인 가족 부양의 위기 요인인 양성불평등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실천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남성 생계부양

자 모델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양육자 모델로의 전환과 함께 양성평등적 가족 부양 문화 확대와 남성의 가족 부양 참여 제고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고령층 부양 위기에 대응하여 가족부양제도의 확대, 가족 부양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스톱 가족 부양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족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단위의 교육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의사소통 및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상담과 치료 등의 전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족 간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 의견을 지지하는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지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분석 결과, 가족 부양 위기 발생 수준은 연령 등의 인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발생 원인은 과반수 이상이 가사 및 육아 부담 등 자녀 양육 문제, 비용 부담과 부양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으로, 가족사회 변화 현상의 가시적인 영향보다 부양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과 관련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부양 위기 기간은 저소득 집단과 고연령층에서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기 경험 기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자원 제고를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 부양 위기 발생 당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이 가족 자원의 부족과 사회 지원 기반의 미흡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가족 자원은 장년층과 고연령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족

하다고 호소한 반면, 사회 지원 기반은 중년층 이하와 고연령층, 비맞벌이 부부에게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가족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집단별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족 부양 위기 후에 가족 관계와 삶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일부 있으나 가족 관계 소원부터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경제생활, 생활 제약 및 중독, 이혼·별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 위기 예방부터 사후적인 치료·회복 등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중 장년층은 부정적인 변화 비율이 높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임을 의미하여 표적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끝으로, 청년층의 성인기 지체로 인해 부모 세대에게 노인과 성인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을 지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발달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 상당수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성인기 지체로 인해 부모 세대에게 노인과 성인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을 불러오며 심각한 돌봄·부양 위기를 초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 돌봄 및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성인 자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청소년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일부 제공되고 있을 뿐 주거, 소득, 교육 등의 포괄적인 제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OECD²¹⁾는 청년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청년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 제공, 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 유지 및 확대, 도제제도와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장려 등을 채택하였다. 우리 사회 청년층의 발달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소득 지원, 주거 지원, 결혼 및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0)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17.

21) OECD. (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http://www.oecd.org/employment/Action-plan-youth.pdf>).